약침학회지 : 제1권 제1호 1997
Journal of Yakchim (Korean Herb-Acupuncture) Institute Vol.1 No.1

藥物注入의 技法的 始源에 대한 小考

안 상 우

한국한의학연구소 임상연구부 임상연구실

Ⅰ. 緖 論

국내 藥針연구는 1960년대 남상천, 김한성 등의 임상연구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80년대에 들어서 한의사의 임상 활용이 넓어지고 약침학회가 결성되면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약침연구는 외적으로 약물의 주입시에 사용되는 주사기라는 의료기구의 이용이 법적인 이용권한의 문제와 주사제제(약물)의 효능 및 안정성에 관한 시비에 얽혀 있고, 내적으로도 기존의 경전적인 경락설의 탈피라는 다소 변혁적인 방법상의 변화에 대한 논란에 걸려있다.

의학적으로 胃腸管을 통한 經口服藥은 체외로 간주되어 세포막을 통과하는 화학약물요법과는 달리 주사를 통한 약물의 직접주입은 피부를 뚫고 조직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약물의 투입방법상 훨씬 직접적이고 소량으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 한의학계에서 폭 넓게 응용되고 있는 약침의 주입기법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약물의 體內注入法에 대한 始原적인 원형태를 찾아, 현대 한의학의 기법적 변모에 대한 의의와 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그 타당성의 준거를 제시하고 현대적인 한약물 경혈주입법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Ⅱ. 本 文

1. 藥物注入法에 대한 歷史的 考察

1) 古典에 나타난 毒物의 이용에 관한 기록

唐·柳宗元의 「捕蛇者說」[1]에 보면 黑質白章이라는 독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독성을 갖고 있어 咬傷시 치명적이었던 것 같다. 이를 乾脯로 말려 大風攣踠瘻癘를 치료하고 去死肌, 殺三蟲의 효용으로 이용하여 太醫가 王命으로 賦稅대신 일년에 두마리씩 捕獲하여 租入케 했다는 말[2]로 보아 당시 이미 동물독의 강력한 약리작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약효의 유지와 사용법에 대한 考究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推斷할 수 있다.

蛇毒은 아주 고래로 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本草圖經』, 『本草綱目』, 『聖濟總錄』등 수많은 의서에 기록이 남아있다. 蛇類의 약효에 대해서는 현금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1995년 中國國歌自然科學基金중 中醫藥學科中標目錄에 등재된 蛇類藥材的分子標記鑑別研究[3]라든지, 蝮蛇의 抗塞栓 enzyme, 蛇毒의 화학성분 연구 등[4]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동종요법에서도 라케시스 뱀독[5]이 주요약재로 사용되어 온 것을 보아도 뱀독의 강한 약리작용을 동서고금에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唐. 陳藏器의 『本草拾遺』, 明. 薛己 『薛己醫案』 등의 韓醫書에도 蜂針毒, 蜘蛛毒등의 독성물질을 약물로 사용한 예가 많으며, 이러한 기록은 소량의 약리물질로 신속한 효과를 기대했던 의인들의 공통된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약침에서 이용되는 蜂鍼을 이용한 蜂毒治療法은 동서양 공히 고대로 부터 응용된 것으로 서양에서도 히포크라티스 시대로 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반치요법가들의 임상활용을 거쳐 1928년 비엔나의 의사인 Franz Kretschy에 의하여 주사용 蜂毒으로 개발되었다[6].

동양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蜂鍼이나 蜂毒을 의학용으로 이용해 왔으며 方以智(1611-1617)의 『生理小識』에 蜂鍼을 瘡瘍의 침구치료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中國蜂針療法』의 저자는 蜂針(Bee acupuncture)이 고대의 九針중 鑱鍼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일회용 천연침이며 자동화된 미량 주사기로 비유하였다[7].

기구의 발달 이전 독사의 이빨, 거머리의 흡혈, 봉침을 비롯한 독충의 自傷에서 독물의 약리작용과 약액의 주입에 대한 힌트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

1. 『古文觀止』, 『唐宋八家文』등에 실려있다.

2. "永州之野山異蛇. 黑質而白章. 觸草木盡死, 以齧人, 無禦之者. 然得而腊之, 以爲餌, 可以已大風攣踠瘻癘, 去死肌, 殺三蟲. 其始, 太醫以王命聚之, 歲賦其二. 募有能捕之者, 當其租入. 永之人爭奔走焉. ..." 李章佑 : 『中國歷代散文選』

3. 중국중의기초의학잡지, 1996. 6, 제2권 제3기 p.64. 1995년 국가자연과학기금중의약학과중표목록

4. '복사의 항색전 enzyme 이 비안정성 협심증 치료에 대한 임상적 연구', '사독의 화학성분에 대한 연구', 「중초약」, 26 / 7

5. Lachesis 중남미 원산의 독사. 『Homeopathic Materia Medica』, pp.215-218.

6. 김문호 : 『봉독요법과 봉침요법』, pp.22-38, 제2절 봉독의 역사적 고찰 참조.

7. 張碧秋: 『中國蜂針療法』 pp.1-6 概說 참조.

2) 古代의 外科術

외과마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春秋戰國시기 『列子』로 환자에게 毒酒를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후 開腹手術을 시행하고 다시 소생케 하였다고 적혀 있다[8]. 당시의 외과술이나 독주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독약의 의약적 효용과 세심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9]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과의 華陀가 수술시 麻沸散을 써서 치료한 사실[10]이나 治腫醫들이 瘡瘍등의 외과적 처치시 대롱을 사용하여 고름을 빨아내고 약물을 불어넣었다는 기록들 역시 약물주입법의 원형을 짐작할 수 있는 端初라 할 수 있다.

또 開竅법의 일종으로 사용했던 吹鼻法이나 吹喉法도 또한 간단한 용구를 사용하여 환부 내지는 치료부위에 신속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11] 한의학에서는 더 이상 기구의 발달을 보지 못하고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반면, 서구에서는 관장기나 접종란셀과 더불어 주사기의 원형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기법들이 약물주입법의 시원적 사고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흡각법

흡각은 동서고래로 이용되어 왔으며, 공기를 압출시켜 체내 물질을 외부로 빨아내거나 피부자극을 통한 체내대사의 촉진 용도로 사용된다. 한의학에서는 사혈과 부항법으로 발전하였고, 그리이스, 로마, 멕시코, 이집트등의 고문명지역에서도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 동물의 뿔(獸角)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晉代 葛洪의 『肘後備急方』에 '角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王燾의 『外臺秘要』, 趙學敏의 『本草綱目拾遺』 등의 의서에 다양한 사용법이 등장한다. 이 치료법은 초기에 瘡瘍이나 膿腫의 독소를 빨아내고 피고름을 제거하려는 외과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내인성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대되었다. 附缸의 재료로는 처음에 속이 빈 큰 짐승의 뿔이 이용되었지만 점차 竹筒이나, 陶瓷, 銅鐵, 유리등으로 발전되었다[12].

특히 흡출방식상 '推氣罐法'은 피스톤식 주사기를 사용하여 병내의 공기를 빨아내고 협소한 환부에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방법으로 보이나 주사기의 원리와 대동소이하고, 煮藥罐, 藥火罐(貯藥罐), 針藥罐등은 일정 용도의 약액을

8. 『列子』"魯公扈, 趙齊嬰二人有疾, 扁鵲遂飮二人毒酒, 迷死三日, 剖胃探心, 易而置之, 投以神藥, 卽悟如初, 二人辭歸."

9. 『마취학』(중국의학백과전서) 참조

10. 『三國志』「魏書」

11. 『東醫寶鑑』
雜病篇九 救急門의 中惡條 "○急取半夏末 或皂角末 吹兩鼻中卽活… (得效), …又取葱黃心刺鼻中 入深四五下 … (本草)"
鬼魘條 p.97 "…仍用筆管吹兩耳 又取半夏末 或皂角末 吹兩鼻中 (得效), …仍搖藥入鼻及以竹管吹其兩耳… (山居)" 을 비롯하여 中惡, 鬼魘, 尸厥, 鬱冒, 卒死, 救自縊死, 救溺水死 등의 조문에 多見됨.

12. 王雪苔의 『中國針灸大全』, 拔罐療法 참조.

관내에 넣어 약물의 효능을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비록 피부를 투과하여 주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약물주입의 전구적인 형태로 보여진다. 자락에 의한 습식부항요법이 정형화되어 침구요법으로 일찍 정착된 반면, 이러한 방법들은 비교적 소수민족이나 지역적인 특수요법으로 전승되어온 것으로 보인다[13].

이러한 사정은 한의학이 金·元 시대를 거치면서 내복처방 위주의 후세의학이 주류를 이루고 외치법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기계기술이 뒤떨어졌던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일찍이 주입용구가 개발되지 못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주사기가 전쟁으로 인한 부상시 더러운 피나 고름을 빨아내기 위한 주사기형태가 현재 주사기의 원형태로 간주되며 오늘날의 흡각기의 전신[14]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약물주입법의 원형적인 사고는 동서의학 모두에 공존하였으며, 한의학에서 흡각법을 이용한 체내물질의 배출과 약액의 흡수를 시도한 부항요법은 광의에서 약물주입법의 기법상 시원적인 형태로 보여진다.

4) 서양의학에서의 주사기의 이용

주사기라는 기구자체에 대한 의사학적인 언급은 보기 드물고 하비의 혈액순환론 발견이후 16세기경 導管을 통한 輸血(transfusion)의 시도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15]

의료기구의 발달사에 의하면 초기 형태의 주사기는 골각이나 황동으로 만들어 졌으며, 은, 주석, 상아, 기타 합금등이 재료로 쓰였다. 유리세공의 발전과 피스톤의 발명이후 대략 18-9세기에 이르러 근대식 주사기형태의 유리주사기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형태의 주입기는 아마 15-6세기 무렵으로 여겨지며, 외형상 현대적인 주사기와 근접한 형태는 17세기 경의 것이 현존한다. 따라서 서양의학사에 있어서 주사기는 관장기와 마찬가지로 약물을 구강을 통하지 않고 주입하는 용구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주사기가 관장용구(주입기)와 함께 다뤄지고 있으며, 외과학이 일찍 부터 발달한 서양의학에 있어서 도구의 개량이라는 의미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혈에 따른 정맥주사의 비중과 수혈용 주입기의 개량도 심장과 혈액순환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16] 점에서 가치를 두었을 뿐 한

13. 이것은 苗族의 弩藥針이나 雲南省의 小針拔離術과 같이 침류의 용구와 함께 약물의 흡수를 피하여 침과 약의 이중효과를 노리는 민간치료법이 전승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14. "18세기 전반에 프랑스인 쉬뤼르그 도미니끄 아넬(Chirurg Dominique Anel, 1697-1740)은 소위 '군인 벼룩'이라는 흡입기를 대체하기 위해 소형 흡착주사를 고안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군인들의 부상을 빨아내기 위해 이것을 받았다.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더러움과 감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을 터인데 이로써 부상은 빠르게 치료되었다. 이 주사기는 오늘날의 흡출기(Aspirator)의 전신이다." Elisabeth Bennion : Alte medizinische Instrumente, Ko"ln, Parkland, 독일어판 1996, pp.167.

15. W. F. Bynum, Roy Porter :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New York, Routledge, 1993. 참고

의학에서 처럼 약물의 주입방법상의 진전, 더 나아가 한약과 침구경락의 결합이라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중국수침연구의 起源

중국수침의 제조기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柴胡注射液이며, 1941년 전후 山西 武鄕에 주둔하고 있던 八路軍의 야전위생부 위생재료창에서 開發되었다[17]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에서는 50년대 초기 봉폐요법 시행중 침구요법과의 임상적인 결합을 통하여 효과를 인지하여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孔穴封閉'로 명칭되었다고 적고 있다.[18] 50년대 중반부터 초보적인 연구에서 광범위한 임상활용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카인에서 여러가지 약물이 다양하게 응용되어 한, 양약중 근육주사가 가능한 대부분의 약물이 주입되었고 심지어는 기체등도 주입약제로 개발되었다. 아울러 주사부위와 임상치료의 병증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19].

중국에서의 수침요법 개발이 비록 명문화된 시기로서는 조금 앞선 듯하나 주사액제조기원과 봉폐요법시행과정중 개발된 것으로 보아 전쟁기간중 외상이나 전염성질환의 응급에 소용되는 서양주사액의 공급부족으로 대체 개발된 것으로 보여 순수하게 한약주사제의 시원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견해는 苗의 『水針療法』에서도 50년대 창시후 40여년간의 임상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하였다는 저자의 서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20].

중국의 수침은 이후 방약(方藥)의 中西醫結合 측면에서 劑型改革 硏究에서 다뤄지고 있으며[21], 注射劑型은 丸劑의 改良劑型으로 간주하고 있다.[22] 이들이 中西結合이라는 다분히 개방적인 상태에서 수침 연구가 진행되는 까닭으로 양약이나 독극물질 등의 실험적인 시도[23]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반면 한의학의 기본이론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이에 비하여 국내 약침 연구는 경락 학설과의 결합, 전통 한약처방 위주로 연구되고 있어 상호간의 구별점을 이루고 있다.

16. 김원곤, 『생명의 불꽃』, pp.137-8 참조

17. 『中華醫史雜誌』의 「中藥注射劑創制考源」에서는 薛愚주편의 『中國藥學史料』(人民衛生, 1984: 408)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출전을 확인치는 못하였다.

18. 국내에는 1960년대 常山注射液이 중국 水鍼 사용의 시발로 알려져 있다. – 김한성 : 「녹용약침액의 아문혈 주입에 의한 두통의 치료효과」

19. 苗彦霞 : 『水針療法』, pp.2 참조.

20. "水針療法..., 故自50年代創始後, 很快就被廣泛應用于臨床各科. ...廣泛搜集了40餘年來有關水針治療的臨床資料, ..." 苗彦霞 : 『水針療法』, 前言.

21. 蔣培華, 史小華 : 「丸劑的歷史 現狀與改革」, 「湯劑的歷史 現狀與改革」, 程克邦, 謝崇義 : 「對湯劑劑型改革探討一文的看法」, 張志偉 : 「湯劑劑型改革探討」 등 上海中醫藥雜誌에 실린 일련의 논문 참조.

22. 蔣培華, 史小華 : 「丸劑的歷史 現狀與改革」 p.38 참조.

23. 于尒辛, 『中西醫結合學』 pp.84-99 참조

또한 래한한 馬伯英의 세미나발표시[24] 질의를 통한 답변에서 그는 오히려 한국의 6, 70년대 약침연구가 중국에 비해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남은 자신의 회고에서 일본국제침구학술대회의 초청사실에서 최초임을 주장하고 있어 그 선후관계를 확언하기에는 곤란하나 이는 분명 전통의학의 새로운 기법적 변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국내 약침연구의 시초

1) 金一勳의 한약주사

三寶注射는 仁山 金一勳옹이 광복전부터 개발하여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합성의약품으로 집오리 腦髓의 3차 증류수(일명, 三寶水)에 土熊膽, 麝香, 牛黃의 3종 약재를 가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탕약처방과 마찬가지로 질병별로 용량을 달리하고 적응증을 기재하였다[25]. 아울러 三寶補血注射藥, 三寶링게르액등을 암종을 비롯한 난치병의 특효법으로 싣고 있어 서양의학의 보급에 따른 국내 한의학의 기법적 번모를 시도한 단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벌침(蜂針)과 독사의 독수를 이용한 주사법(毒蛇齒針注射)을 소개하였는데, 이들의 독침이 음양이공으로 이루어져 약물의 주입과 영양성분의 흡수가 동시에 일어난다[26]고 설명하고, 자연속의 동물독의 치료작용을 이용하여 체내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한편 잔존한 병독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원리를 한의학의 去惡生新法에 비유하였다[27]. 이로 보건대 한약물을 이용한 약물주입방법은 針灸 혹은 약물의 결합을 통하여 補瀉原理를 구현한 기법적 진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그의 생전에 발표한 좌담을 통하여 血淸注射, 毛孔注射, 灌腸器注射, 五位注射[28]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도 그가 비교적 초기에 인체의 피부를 통과하여 약액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2) 南相千의 經絡鍼과 신경락설

60년대초 부터 약물주입법에 대하여 혼자 몰두하였던 그는 鹿茸, 人蔘, 黃芪, 酸棗仁 등의 약액을 직접 제조하여 실험적 연구를 계속, 1965년 「經絡注入治療」라는 단문을 시발로 자신의 치료법을 세간에 공개하였다[29].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1966년 부터 약침액을 직

---

24. 1996. 9. 3일 한국한의학연구소 회의실에서 「中華人民共和國建立(1949)以來中國醫療制度之變遷」과 「最近100年間 中西醫結合之狀況及未來的前途」 라는 주제로 진행된 2차례의 세미나.

25. 김일훈 : 『神藥』, pp.49-53 참조.

26. 「음공·양공 주사침의 신비」 (민의약 89년 9호, p.166-171.)에 따르면 1985년 7월 대구강좌에서 발표되었음.

27. 김일훈 : 『神藥』, pp. 96-99 참조.

28. 『民醫藥』 1989년 8, 11, 12호의 민의약자료실 참조.

29. 1995. 2 남씨와의 대담요약.

접 제조하여 주입하는 방법을 임상강좌를 통하여 보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30] 1967년에 『경락』 제1권을 발표하였다. 원리편에서 그는 피하에서 촉지되는 섬유질의 경결체가 風, 寒, 暑, 濕, 燥, 火의 六淫에 저항하여 발생하는 경락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로써 경락의 실체를 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경락의 반응에 따라 風性經絡, 火性經絡, 熱性經絡, 燥性經絡, 冷性經絡, 濕性經絡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氣劑, 潤劑등 수종의 약침용 주입제제를 개발해 내었다. 그의 연구는 생전의 김일훈옹과의 親交를 통하여 계기를 이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두 사람간의 왕래사실이나 紅花, 胡桃, 蜂毒 등 초기 실험약재들이 인산이 주로 애용하던 약재임으로 미루어보아도 인산과의 교류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정된다[31]. 여하튼 그가 초기 약침연구의 보급과 제제의 임상활용에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은 변하지 않으며 젊은 임상한의사들의 호응속에 한의학내의 일분과로 자리잡게 되는 결실을 이루었다.

3) 金廷彦의 八綱藥針과 복합처방제제

남의 경락침에 매료된 그는 약침연구에 몰두, 스스로의 경험에 의거하여 경락, 경혈의 기능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인 八綱에 의거하여 기성방제를 전탕한 복합처방제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32]. 그는 장부허실의 개념을 결합하고 약액을 다양화함으로써 자칫 외치법에 머무를 수 있었던 약침요법을 좀 더 한의학적으로 진일보시켰으며, 임상가의 응용을 손쉽게 하였다.

4) 국내연구 학술논문

주입기법에 관한 최초의 지상발표논문은 宋台錫의 「프로카인주사의 補的役割」로 제13회 국제침술학대회에 발표되었으며 1965년 대한한의학회지에 수록되었다.[33] 그러나 이것은 순수 한약을 이용한 약침논문이 아니고 합성약품을 사용한 침구보사원리를 다룬 임상논문이며, 같은 시기 한의학회지에 실린 국[34]의 논문은 金絲注入法을 다룬 최초의 것으로 전탕된 한약제제의 주입은 아니나 이때 이미 약물의 직접주입법이 한의사들의 관심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사 김한성은 1975년 수의학 분야에 약침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로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초창기 임상보급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동안 한의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약침요법은 80년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각 대학의 학위논문과 연구성과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1993년 대한한의학회내 정규 분과학회로 등록하게 되었다.

30. 『經絡』, 제4권, p. 219. 後記

31. 仁山과 남상천의 교류사실은 남씨에게서 약침을 전수받은 황재옥의 전언

32. 『기적의 약침요법』, pp16-25.

33. 의림 협회지

34. 「人體構造成分의 相對配置와 이에 對한 純金注入施療法」, 국명웅, 65. 3월, 대한한의학회지

4. 약물주입법에 대한 해외의 연구동향

동종요법[35]은 18세기 독일의 샤무엘 하네만에 의해 창시된 자연의학의 일종으로 그 기본원리가 한의학과 매우 유사하며 약물 또한 자연품을 알콜이나 물에 침출시켜 고유의 제법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독일의 전통의학이라할 수 있는 호메오패시는 현대 서양의학과 서로 체계가 다른 대체의학의학으로서 상보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의학의 발전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36].

한편 동종요법과 동양의 침구술의 결합을 꾀하는 호미오펑쳐(homeopuncture)요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희석한 동종요법 약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기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37] 현재 독일내에서 공장생산되고 있는 자연의학약제 총2694종 품목중 약10.2%에 달하는 274종이 주사제제로 등록되어 있다[38]. 동종요법 약제를 이용하여 복합처방을 생산하고 있는 독일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94종의 주사제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었다[39].

* 새로운 침술연구

일반적인 침대신 속이 빈 침을 써서 경혈속에 마취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미량주입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間中(Manaka)과 시겔(Siegel)은 천식환자의 치료에 천연두 예방백신을 흉부와 복부의 경혈속에 미량주사한 결과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40].

또 중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자침과 함께 단속전류를 통전시키고 약제의 이온을 주입하는 이온화침법(ionising acupuncture)을 시행한바 단순 침법에 비하여 높은 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1991년 보건의료산업국 산하에 전통치료법연구소를 설치하여 모스크바반사요법연구소를 중심으로 12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침구와 관련 전기자극요법, 레이저침법, 자기침법등과 함께 약침을 연구하고 있으며 침구이론실기부에서 임상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III. 考察 및 結語

1. 현금 국내 한의학계 임상에서 다용되고 있는 약침은 주입기를 통한 한약물의 체내 주입으로 신속한 효과와 약물의 효과적 사용으로 기존의 구강

35. 저자는 homeopathy에 대한 여러가지 번역어가 다만 어원에만 의거할 뿐 원래의 독특한 치료방식을 함축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한의학의 치법중 가장 근사하다고 생각되는 '반치법'을 대역어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의학의 고전이론을 새로운 임상기법으로 연역하여 확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연구소간 『반치의학 연구자료집』 및 졸고 참조.

36. 拙稿 : 「동종요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참조.

37. 김수범, 「유럽 Homeopathy 학술 조사 보고서」

38. Peter Beyersdorff : 『Pra"parate-Liste der Naturheilkunde』에 수록된 제조품목중 주사제제의 조사결과.

39. 1993년판 『Heel Index』의 검색결과

40. 허정 역 : 동양의학사 pp.234

복약법 위주의 약물 투약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기법으로 평가되며, 주입형태는 동서고금에서 공히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진 吸角法에서 유래한 흡출기의 발전된 변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2. 약물주입법은 蛇毒, 蜂毒 등 소량의 약물로 신속한 효과를 노리고저 했던 치료욕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고대의 외과술, 吹鼻法, 灌腸法 등으로부터 기법적 원형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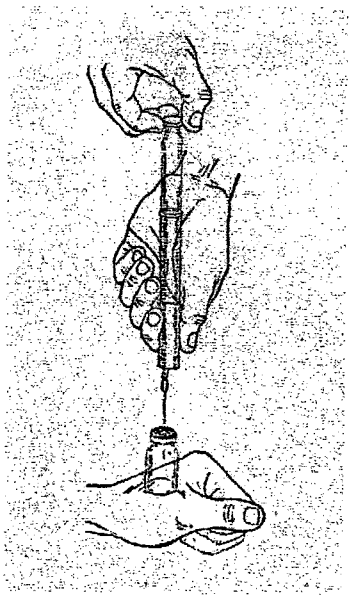
3. 한의학의 약침요법은 灌腸이나 輸血과 같은 서양의학의 도구로써의 주사와는 용도가 다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한 기법상의 발전형태로 보아야 한다.

4. 한국과 중국의 약물주입법은 50·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80년대 다양한 기법 변화를 이루었으며 이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중국의 수침은 중서의결합 차원에서 제형개량 위주의 약물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반면에 약침은 경락학설과 전통 한약처방 중심의 임상기법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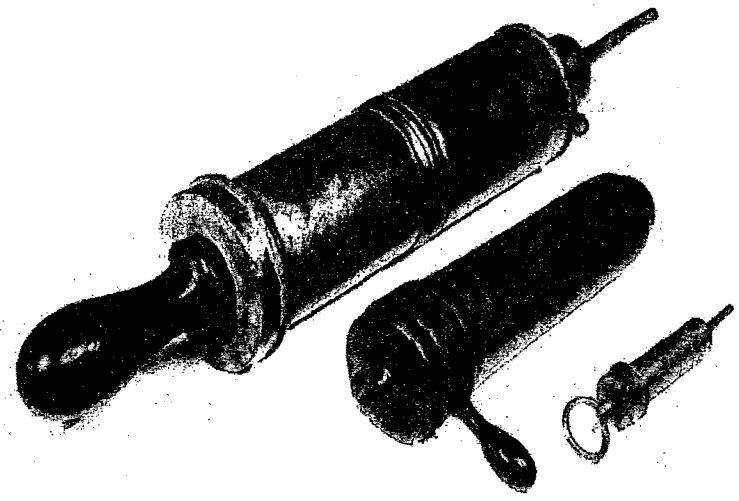
參考圖解

1. 推氣罐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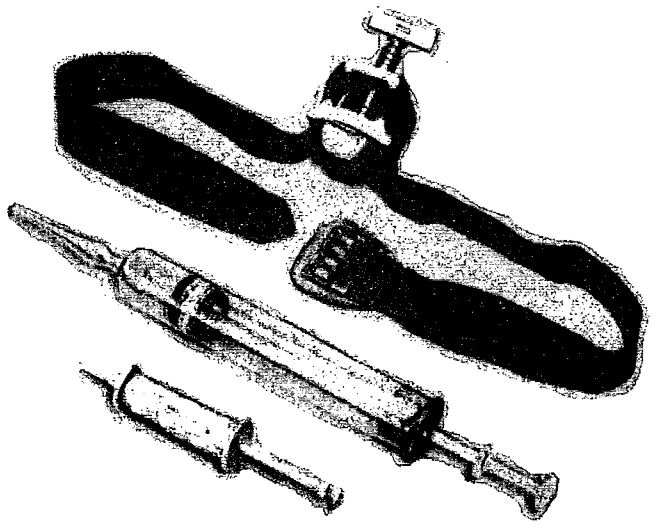
上海中醫學院 : 針灸學, 北京, 人民衛生, 1974.
王雪苔 : 中國針灸大全, 河南, 河南科技, 1988.

2. 灌腸用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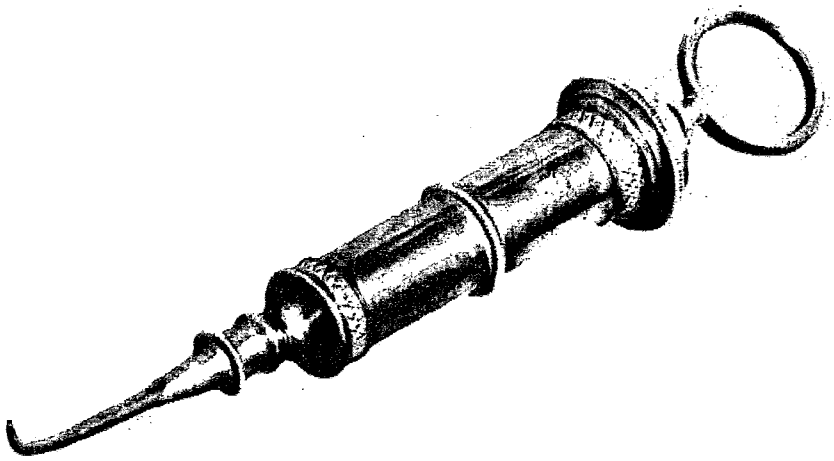
Elisabeth Bennion : Alte medizinische Instrumente, Köln, Parkland, 독일어판1996, p.171.

3. 骨角注射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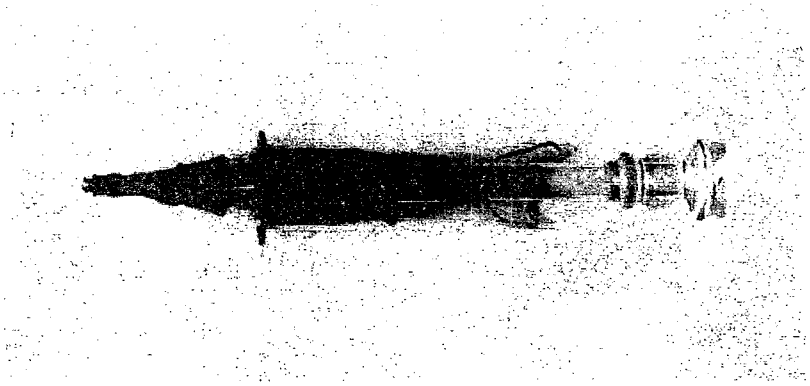
Elisabeth Bennion : Alte medizinische Instrumente, Köln, Parkland, 독일어판1996, p.172.

4. 黃銅注射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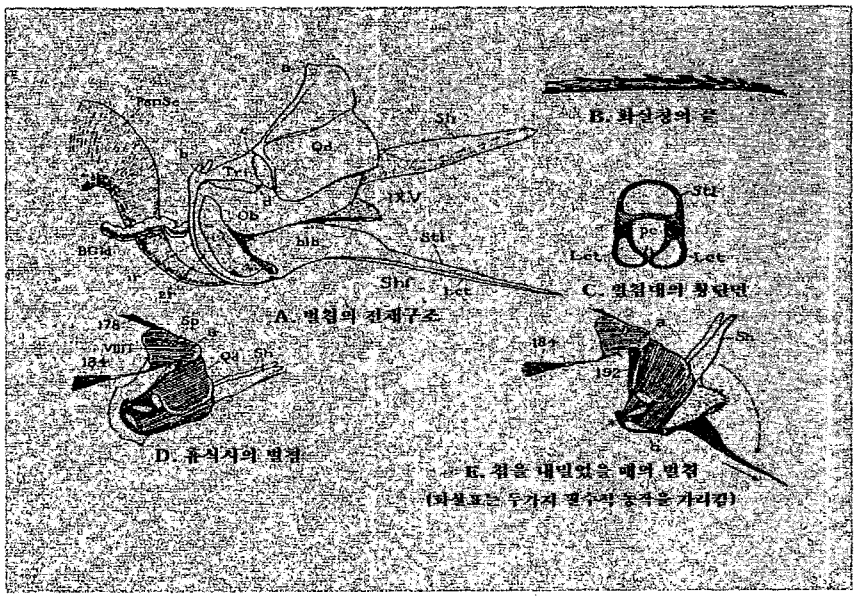
Elisabeth Bennion : Alte medizinische Instrumente, Köln, Parkland, 독일어판1996, p.171.

5. 初期 注射器



Elisabeth Bennion : Alte medizinische Instrumente, Köln, Parkland, 독일어판1996, p.172.

6. 벌침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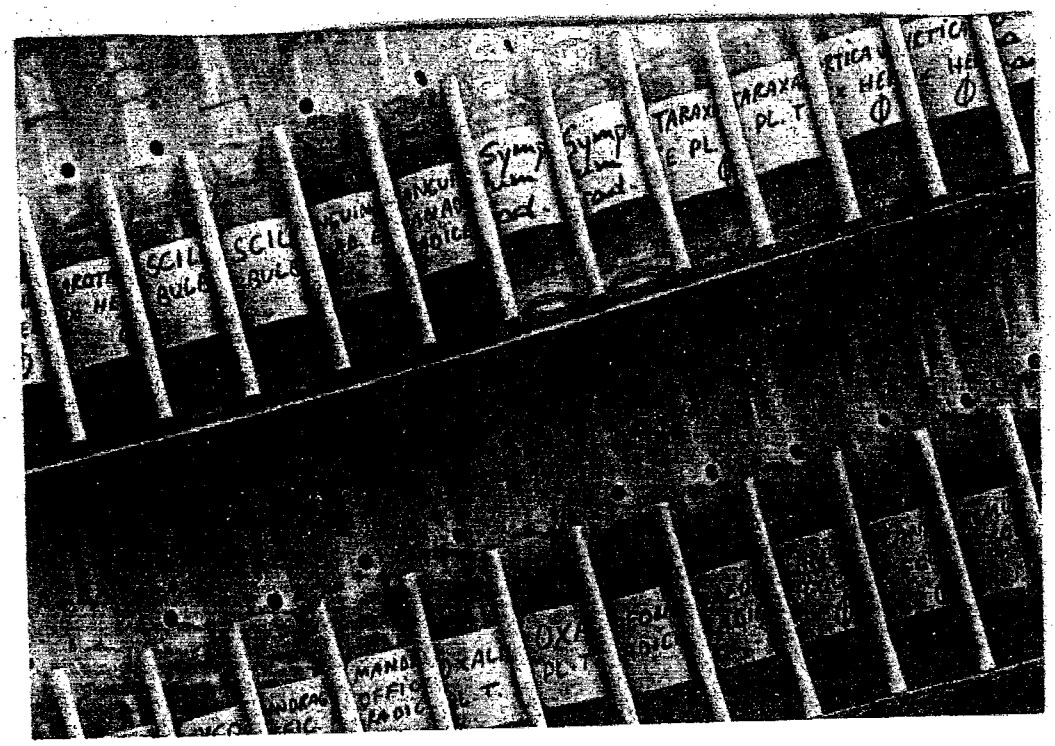


일벌의 벌침

a. 환기구멍판에 네모판의 부착 ; b. 화살창으로 이어지는 세모판의 정상 ; BGld. 알칼리샘 ; blb. 기저돌기의 구상부 ; c. 네모판에 세모판의 경첩 ; d. 장방형판에 세모판의 경첩 ; h. 기저돌기 구상부의 경첩 ; Lct. 화살창 ; Ob. 장방형판 ; pc. 독구 ; PsnSc. 독낭 ; Qd. 네모판 ; Ir. 화살창기지 ; 2r. 구상체 기저돌기의 기지 ; Sh. 침대 ; Shf. 벌침대 ; Sp. 환기구멍 ; Stl. 기저돌기 ; Tri. 세모판

김문호 : 봉독요법과 봉침요법, 서울, 한국교육기획, 1992. p.309.

7. 同種療法 注射製劑 샘플



WALA MED, April, 1996.

參 考 文 獻

1. 고병섭, 안상우 외 譯 : 한약주사제 연구제조 기본원칙 및 관련규정집,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2. 김문호 : 봉독요법과 봉침요법, 서울, 한국교육기획, 1992.
3. 김원곤 : 생명의 불꽃, 서울, 고려의학, 1992.
4. 김일훈 : 신·방광암, 뇌염·뇌막염 묘방, 민의약 89년11호,
5. 김일훈 : 우주와 신약, 서울, 동문출판사, 1980.
6. 김일훈 : 神藥, 서울, 나무, 1986.
7. 김일훈 : 연탄중독 두통 파골의 신방, 민의약 89년12호, p.158.
8. 김일훈 : 음공·양공 주사침의 신비, 민의약 89년9호.
9. 김일훈 : 자궁 및 각종 장암과 맹·아자의 구료, 민의약 89년12호,
10. 김정언 : 기적의 약침요법, 서울, 금강출판사, 1987.
11. 남상천 : 경락, 서울, 우주경락사, 1976 제4권.
12. 남상천 : 경락, 서울, 우주경락사, 1979 제5권.
13. 남상천 : 경락, 서울, 행림서원, 1967.
14. 남상천 : 경락학원론, 경주, 실천의학사, 1994.
15. 남상천 : 기계(궁을편), 서울, 세명문화사, 1993.
16. 남상천 : 기계(전우편), 서울, 세명문화사, 1992.
17. 남상천 : 약침학, 서울, 대한약침학회, 1994.
18. 남윤석 : 약침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19. 苗彦霞 : 水針療法, 北京, 人民衛生, 1993.
20. 上海中醫學院 : 針灸學, 北京, 人民衛生, 1974.
21. 전국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학교실 : 동서재활의학과학, 서울, 서원당, 1995.
22. 葉橘泉 : 中西病名對照表, 香港, 禮美出版社, 1976.
23. 施懷生 馮俊嬋 : 中藥注射液創制考源, 北京, 中華醫史雜誌, 1995, 제25권 제2기.
24. 안상우 : 동종요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1995 제1권1호, 1995.
25. 閻洪臣, 王廣堯, 路志彦 : 傳統療法大成, 長春, 長春, 1995.
26. 王雪苔 : 中國針灸大全, 河南, 河南科技, 1988.
27. 龍官月 : 民間小針拔離術治療肌筋膜炎100例, 中國民族民間醫藥雜誌, 1996 總18期.
28. 于尒辛 : 中西醫結合學, 上海, 上海醫科大學出版部, 1996.
29. 李章佑 : 中國歷代散文選, 서울, 新雅社, 1977.
30. 임상연구부 : 반치요법 연구자료집,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근간.
31. 張碧秋 : 中國蜂針療法, 北京, 人民衛生, 1993.
32. 천연물과학연구소 : 중국생약주사제 수집 및 개발현황,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5.
33. 祝炯奎, 祝有學 : 論畢節地區苗族弩藥針刺法的形成和發展, 中國民族民間醫藥雜誌, 1996 總18期.
34. 編輯委員會 :麻醉學(中國醫學百科全書), 上海, 上海科技, 1986.
35. 허정 역 : 동양의학사, 서울, 대한교과서, 1985.
36. 許浚 : 東醫寶鑑, 서울, 대성문화사영인, 1981
37. 김한성 : 산조인의 진통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38. 김한성 : 녹용약침액의 아문혈 주입에 의한 두통의 치료효과, 대한한의학회지, 1993.
39. 김수범 : 유럽 Homeopathy 학술 조사 보고서, 대한약침학회, 1996.

40. 侯天印 : 中國水針治療學, 北京, 金盾, 1991.
41. Elisabeth Bennion : Alte medizinische Instrumente, Köln, Parkland, 독일어판 1996.
42. Jacques Jouanny : 『Homeopathic Materia Medica』, France, Boiron, 1984.
43. Peter Beyersdorff : 『Präparate-Liste der Naturheilkunde』, Teningen, Sommer-Verlag GmbH, 1995 15., Auf.
44. Pharmaceutical Index, baden-baden, Heel, 1992, 영문 제7판.
45. Routine theraphy, baden-baden, Heel, 1993.
46. Vladmir G. Kukes : The contemporary state of traditional medicine in Russia, 8th ICOM, 1995.
47. W. F. Bynum, Roy Porter :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New York, Routledge, 1993.

ABSTRACT

A reference to the original source of herb-acupuncture in methods

YAKCHIM is a clinical research of korean O.M.D's in the 1960's, and it was activated by experimental research and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after 1980.

YAKCHIM in Korea is a new technical therapy that used the efficacy of traditional herb and the stimulation of meridian at points by needles.

In order to search the original form of YAKCHIM and the significance of development in therapeutic methodology, reger to various documents.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 :

1. The form of injection in YAKCHIM is a developed form of a aspirator which trace the cupping therapy(附缸) to its origin.

2. The injection techniques that used extracts of oriental herb can be found out original methodology in Bee-acupuncture(蜂針) and snake teeth etc, that have been used in far-eastern area from long time ago.

3. YAKCHIM in Korea is a developed form of techniques which was combined with the meridian theory, in consequence, it is difference with an injection syringe which only used to inject in modern medicine.

【Key words】 YAKCHIM (Korean Herb-acupuncture), injection, aspirator, bee-acupuncture, homeopuncture